

# 시진핑 “학계, 중국형 마르크시즘 만들라”

철학·사회과학자 좌담회서

정통성 부각 독자 정치론 펼쳐

언론 이어 사상 통제 나섰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문·사회과학 학계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중국 특색의 21세기형 마르크시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철학·사회과학 공작 좌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과학 이론의 혁신과 마르크시즘의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마르크시즘의 사상적 정통성을 재차 강조했다. 시 주석은 “마르크시즘을 지도사상으로 삼는 것은 현대 중국의 철학·사회과학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중국 철학·사회과학의 중요한 임무는 지속적으로 마르크시즘의 중국화, 현대화, 대중화를 추진해 21세기형 마르크시즘, 현대 중국의 마르크시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대혁명 발발 50주년을 앞두고 침묵했던 중국 지도부가 그 이튿날 학자들을 소집해 이 같은 좌담회를 연 것이 언론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철학·사회과학 공작 좌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 강화에 이은 사상 통제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학자들에게 마르크시즘의 고전을 연구하면서도 현 상황에 맞는 이론을 수립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각 대학 및 연구소에서 참석한 인문·사회과학자들의 발언을 들은 뒤 “철학·사

회과학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과 결합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철학·사회과학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 주석은 “자연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가 세계 선두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철학과 사회과학이 번성하지 않은 국가도 세계 선두에 설 수 없다”면서 현재 중국에

서 진행 중인 엄청난 사회변화가 철학과 사회과학 발전에 기름진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르크시즘의 시대, 실천, 과학발전이 따라 부단히 발전해온 개방된 이론체계를 갖고 있다”며 “마르크시즘의 진리는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중국 관측자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전임자들에 비해 마르크시즘의 정통성을 유난히 강조하며 집권 이후 여러 차례 고위급 회의를 통해 마르크시즘의 고취하는 발언을 해왔다.

이 같은 마르크시즘에 대한 사상적 정통성 강조가 시 주석이 자신의 독자적 정치이론을 발전시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중국 관측자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과 함께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있다.

시진핑 체제는 집권 이후 이후 전면적인 사오강(小農)사회 건설, 개혁심화, 의법치국, 기술강화 등 4개 전면(四個全面) 전략을 집적지점으로 삼고 있다. /연합뉴스

# 힐러리, 간신히 승리

켄터키 주 경선서 샌더스 1%P 차로 꺾어

17일(현지시간) 미국 중남부의 켄터키 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사진)이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가까스로 꺾고 승리했다.

그러나 같은 날 실시된 서부 오리건 주 경선에서는 샌더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AP통신에 따르면 개표가 99% 진행된 결과 클린턴이 46.7%를 기록해 46.3%를 얻은 샌더스를 1%P가량 앞섰다. 이날 경선에 걸린 대의원 수는 55명이다.

클린턴은 이날 들어 인디애나 주와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샌더스에게 연속으로 패배했던 경선 흐름에 제동을 걸기 됐다. 켄터키 주 경선은 민주당에 등극한 당원들만 참여하는 폐쇄형 예비선거이고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클린턴이 유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의외로 샌더스에 대한 지지가 만만찮아 개표 막판까지 양자택일투쟁을 거듭하며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대접전이 펼쳐졌다.

대의원 61명이 걸려있는 오리건 주 경선은 샌더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리건 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의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샌더스가 오리건 주에서 승리 하더라도 클린턴으로 기운 전체 경선 판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선 전까지 클린턴은 대



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넘버의 94%인 2240명을 확보해놓은 상태였다.

이에 비해 샌더스는 62%인 1473명이었다. 다만 샌더스로서는 다음 달 14일 워싱턴 DC에서 종료되는 경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동력을 한층 더 확충하게 됐다.

클린턴은 샌더스를 조기에 제압하는 데 실패하고 경선이 장기화됨으로써 당내 지지기반을 통합하는 작업에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연합뉴스

美금리 6월 인상 우려

중국 등 亞증시 하락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18일 일제히 하락하면서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7분(한국시간) 현재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88% 하락한 2,790.23에 거래되고 있다. 선전종합지수는 2.69% 떨어진 1,765.93을, 대형주 중심인 CSI 300지수는 1.45% 내린 3,041.42를 나타냈다.

홍콩 항셱지수도 1.68% 하락한 19,781.42를 보였다. 일본 증시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도쿄 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는 0.51% 떨어진 16,567.88에, 토픽스 지수는 0.25% 내린 1,332.57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한국 코스피는 0.72% 떨어진 1,953.90을 나타냈다. 중국 등 아시아 증시가 흔들린 것은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대두했기 때문이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 등은 일제히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2~3회로 예상했으며, 록하트 총재는 6월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몽둥이를 마구 휘둘러 수십 명이 다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발발 남자는 괜찮을까?

케냐경찰, 시민에 몽둥이 폭행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몽둥이를 마구 휘둘러 수십 명이 다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프 보이네트 케냐 경찰청장은 17일(현지시간) 특별 감사반에 시위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한 진압 경찰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이 보도했다.

방충복을 단단히 차려입은 케냐 경찰은 전날 나이로비 도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IEBC) 사무실 건물에 진입하려던 수백 명의 군중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최루탄을 쏘고 진압봉을 휘두르며 진압에 나서 수십 명이 상처를 입었다.

특히 현지 언론에 소개된 비디오 화면에는 녹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이 3명의 경찰에게 돌아가며 몽둥이질질을 당하고 발로 짓밟히는 장면이 나와 많은 국민의 분노를 샀다.

케냐에서는 아편 연합인 ‘코드(Cord)’를 중심으로 지난 수주 간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해 일부 지방도시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원들이 여당 편을 들고 있다며 선관위 해체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일본, 2019년 달에 우주선 보낸다”

월면탐사기 제조

일본이 수년 내에 우주선을 보내 달 표면 착륙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니혼케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三菱)전기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주문을 받아 일본 최초의 월면탐사기를 제조한다.

목표 지점에 100m 이내의 오차로 착륙할 수 있도록 그간 타국이 만든 탐사기(오차 약 1km)보다 정확도가 높은 기종을 개발해 2019년도(2019년 4월~2020년 3월)에 발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무게 약 130kg의 소형 무인탐사기를 보내 달 표면을 조사하되 일단 착륙한 후에는 다시 지구로 귀환하게 하지 않는다. 일본의 첫 월면탐사기는 비행 중에는 광학 카메라로 달 표면을 촬영하고

분화구를 인식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탐사기는 2007년에는 달 주위를 도는 위성 가구야로 수집한 달의 분화구 자료를 새로 수집한 자료와 비교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월면탐사기 개발 사업에는 약 180억 엔(약 1949억 원)이 투입되며 JAXA와 미쓰비시전기 외에 일본의 여러 대학이 참여한다.

JAXA는 이르면 2022년에 화성의 위성을 향하는 탐사기를 발사할 예정이며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달 표면 탐사 과정에서 얻은 기술을 여기 활용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일본은 소행성에 탐사기를 보내서 착륙시켰다가 지구에 돌아오게 한 경험이 있으나 달처럼 상대적으로 큰 천체에 탐사기 착륙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p><b>4층 상가 원룸 매매</b>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p> <p><b>1층 (커피숍 입점)</b></p> <p><b>2층~3층 (고급 룸 8개)</b>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p> <p><b>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b></p> <p>□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p> <p><b>010-6670-9800</b></p>	<p><b>노대지구 3층 상가 건물매매</b> 노대동 광주은행 코너자리</p> <p>◆ 토 251평, 건 431평 ◆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p> <p>1층 (상가 8칸) 2층 (상가 4칸) 3층 (원룸 8개, 투룸 5개)</p> <p>□ 보 1억 6천, 월 1,360만 □ 매가 → 28억</p> <p><b>010-7384-7800</b></p>	<p><b>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b>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p> <p>□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6층 (45평) 울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용 5천) → 매가 1억 1천만</p> <p>□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만(용 1천 5백만) → 매가 8천 500만</p> <p>□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 4만(용 2천 4백만) → 매가 7천 500만</p> <p>□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 (빌라 원룸)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2층 (11평) 운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p> <p>□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1층) 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 식당, 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 5천만</p> <p>□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p> <p><b>010-6834-4800</b></p>	<p><b>법률경매</b> (특수물건 추천)</p> <p>□ 동구 동명동 (8층상가 오피스텔) → (토 21평, 건 606평) → 오양병원 추천, 주차 면적, 4천 도로 접 → 법원조대 부근, 임대객정 위임 □ 감평가 19억 5천 - 최저가 13억 7천</p> <p>□ 서구 양동 (숙박 시설) → (토 174평, 건 424평) → 1층 (주거용,키움) 2층~5층 (숙박시설,40개) → 광주은행 동측 인근, 약 10m 도로접 □ 감평가 10억 8천 - 최저가 4억 8천</p> <p>□ 담양 (전원주택) → 토 146평, 건 18평 → 금성중학교 인근, (주변 상권,전원주택지) □ 감평가 6천 2백 - 최저가 6천 2백</p> <p>□ 북구 운암동 (5층 상가 건물) → 토 66평, 건 194평 → 지하(음식점) 2층~3층 (전입업체 4~5층(사무실) → 운암동 공구거리, 광고효과 좋음 □ 감평가 7억4천6백 - 최저가 5억9천7백</p> <p>□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 → (토 223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면비 □ 감평가 12억 - 최저가 9억7천2백</p> <p>□ 남구 주월동 (5층 상가건물) → 토 103평, 건 380평 → 1층 (사무실) 2층~5층 (학원(사무실) → 재석초등학교 부근, 아파트상가 밀집지역 □ 감평가 7억9천8백 - 최저가 5억5천7백</p>	<p><b>경매교육</b>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p> <p>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p> <p>□ 매주 수요일 (오전)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p> <p>☆ <b>경매 실전 교육</b>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 특수물건, 유채권, 가정법원, 경매인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p> <p>(주)대신경매 <b>직원구합니다.</b>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p> <p><b>010-6832-9700</b></p>
--	---	--	---	--